

TV에서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를 보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권' 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권' 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그 안에서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공기를 조금만 벗어나도 숨막힘을 절감하게 되는 것처럼
'인권' 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란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수첩은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권리' 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수첩을 보다보면 잊고 지내왔던 혹은 모르고, 또는 알면서도 포기하고 지내왔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식메뉴책을 뒤적이다 보면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듯,
이 수첩을 보면서 '당연한 나의 권리' 를 인식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도와주는 책' 이라고 이름지었습니다.



☎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0-042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83 시티21빌딩 3층
전화 02-2675-8153 / 팩스 02-2675-8675
이메일 human5364@daum.net
www.15775364.or.kr

- 옹호자를 위한 설명서 -

생각을 도와주는 책 ↔ 이해를 도와주는 책

☎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제작 취지

많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주시설의 생활환경이 예전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규칙이 존재하는 통제된 환경과 집단생활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잊혀지기 쉽습니다. 이번 '생각을 도와주는 책'에는 집단 속에서 잊혀지고 묻혀지기 쉬운 '나'의 인권과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권리는 무엇일까요? 그러한 생각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거주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와 지원되는 서비스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그림을 보면서 생활시설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인권수첩'이라는 제목보다 (이용자의) '생각을 도와주는 책'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옹호자를 위한 설명서 제작취지

- 그림에 대해 거주시설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옹호자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옹호자는 그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거주시설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거주시설이용자의 권리는 당사자가 지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용자를 둘러싼 옹호자가 얼마나 이용자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보장하는지에 따라 지켜지기도,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이용자와 옹호자 모두 거주시설의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고민한다면 이용자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 정해진 그림 외에 거주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그림을 넣는다면 옹호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 수첩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에게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나에게 대한 정보를 기입하듯이 이 수첩을 받은 거주시설의 이용자도 자신의 정보를 적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나의 물건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 나의 사진 또는 나를 그린 그림 등을 넣고 이름을 적습니다. 나와 내 주변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주변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음으로써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전화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알게 됩니다.

(사진)

나는요...

이름 _____

☎ 나 _____

☎ 옹호자 _____

☎ 부모님 _____

☎ 친구 _____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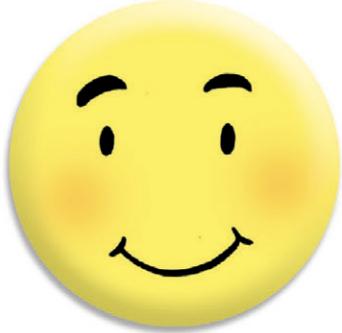
나는요...

• 나의 이야기를 쓰는 공간입니다. 메모장과 비슷하지만 나의 꿈을 적을 수도 있고, 나의 특징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좋음과 싫음, 즐거움과 니쁨을 동그라미 그림으로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의 웃는 얼굴과 찡그린 표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 이 그림들은 자신의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그림을 지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수첩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 있다면 그림위에 덧붙여서 자신만의 감정그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말합니다	<p>좋아요 / 즐거워요</p> 	 내 마음을 말합니다
	<p>싫어요 / 나빠요</p> 	
4	<p>좋아요 / 즐거워요</p> 	5
	<p>싫어요 / 나빠요</p> 	

내 몸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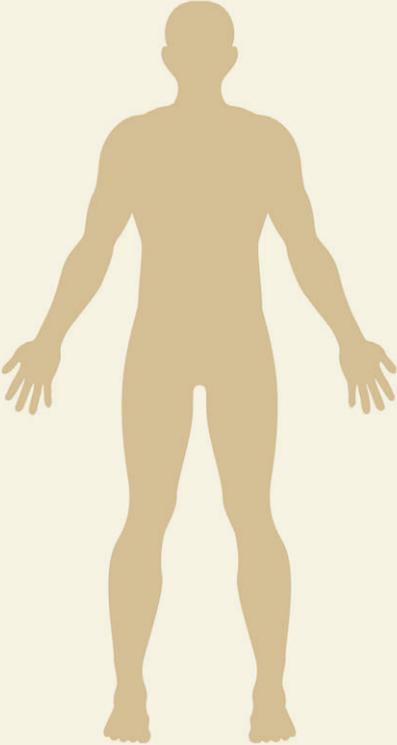
• 자신의 몸이 아파도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픈 부위를 짚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모습 그림을 통해 아픈 부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경우 아픈 부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을 벌린 그림을 통해 아픈 부위를 직접 짚음으로써 이후 치과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지금 아픈 곳을 짚어낼 수도 있고, 과거에 아팠던 곳, 수술했던 곳 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 등을 통해 현재의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건강상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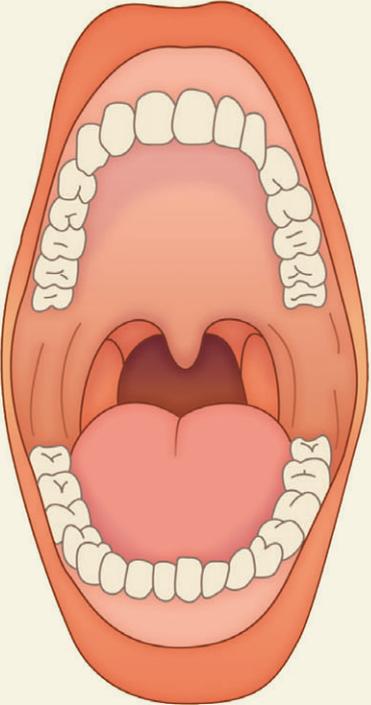
• 하단의 얼굴 표정은 아픔의 강도를 표현합니다. 아픈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체부위의 명칭을 써 놓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가 아파요



치아가 아파요



6









7

내 몸을 말합니다

내 몸을 말합니다

내 몸을 말합니다

• 앞장에서 몸 전체를 보여줬다면 이번 장에서는 자주 아픈 신체부위들을 그림화했습니다. 이 그림의 신체부위가 아플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 신체부위가 자주 아프다고 표현한다면 옹호자는 이를 눈여겨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 몸을 말합니다



8



내 몸을 말합니다



9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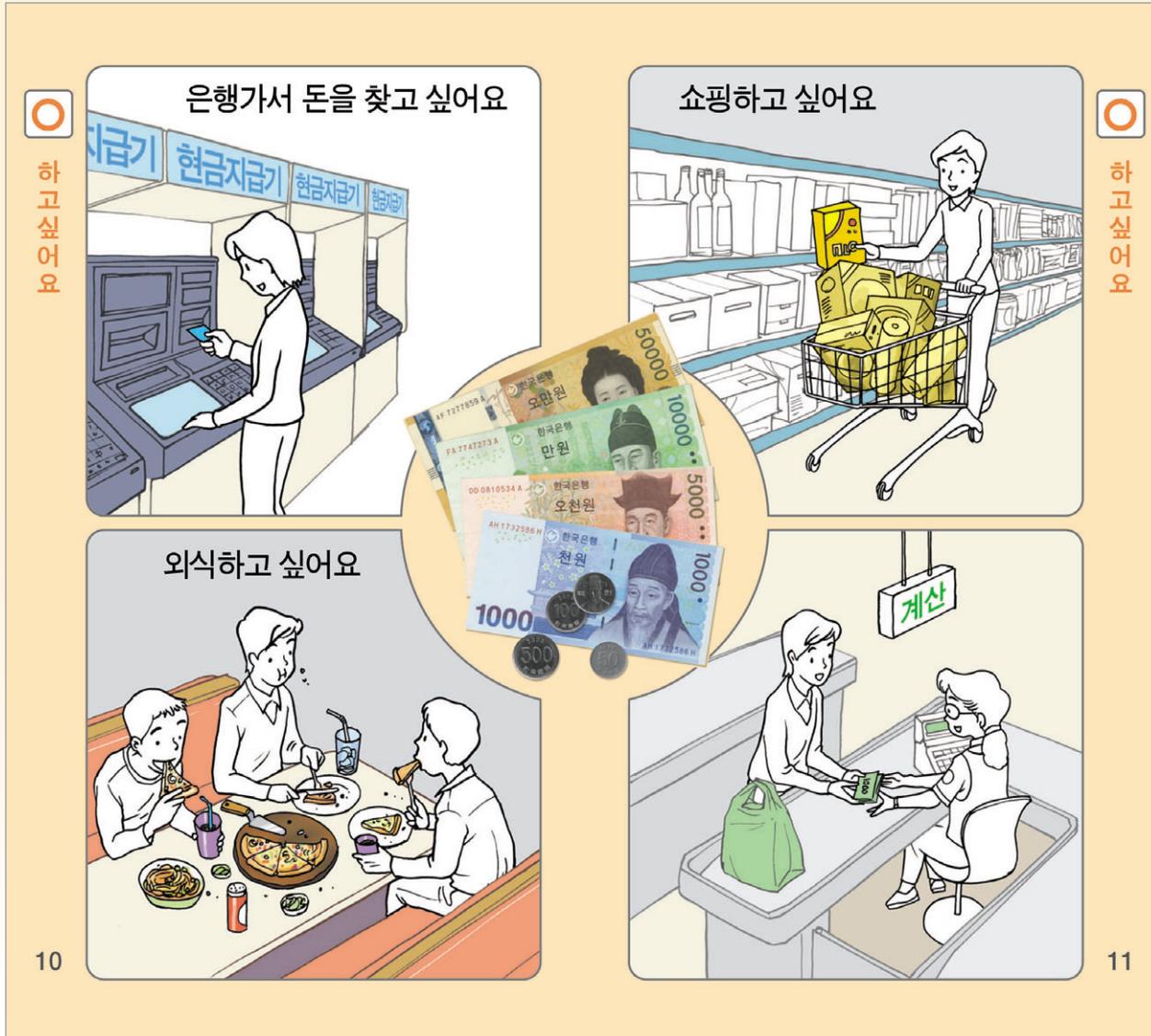
• 네 개의 그림은 서로 연속선상에 있는 그림입니다.

• 돈을 알고 있는 이용자는 많지만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본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명의의 통장이 모두 개설되어 있고, 돈을 알고 있지만 은행에서 돈을 직접 인출해본 경험을 해본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거주시설의 종사자가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고, 사용할 일이 있을 때는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외출하고 종사자가 카드 등을 통해 계산합니다.

• 이 그림은 통장의 명의자인 본인이 은행에서 현금인출기를 통해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해보고 그 돈으로 누군가 골라주는 물건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하고, 계산까지 해보는 모습입니다. 또한 직접 인출한 현금으로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거주시설에서 외식은 단체로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규모 그룹으로 외부에 나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주문해 봅니다.

• 옹호자는 카드의 경우 카드를 긁는 것의 의미, 사인하는 것의 의미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직접 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 수동적 소비가 아닌 적극적 소비를 통해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 타인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장애 여부를 떠나 모두가 느끼는 욕구입니다. 거주시설의 이용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도 개인 핸드폰이나 전화를 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대부분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원하지만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 거주시설 중에는 자유롭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중전화 박스가 설치된 곳도 있고 사무실을 오픈하여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본 경험이 별로 없고 그것에 대해 꾸준히 전화걸기 학습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하거나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기를 사용하는 방법, 타인과 전화로 소통할 때 느끼는 즐거움 등을 전화함으로써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행가고 싶어요

- 이용자의 여행경험이 다양해졌습니다. 기차나 배, 비행기로 여행을 했던 기억들 중 본인이 여행을 하고 즐거웠던 기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 하지만 여행이라는 단어보다 다른 환경에서의 경험과 타인과의 만남, 맛있는 지역 음식을 먹었던 이야기 등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다녀온 이용자는 더 다양한 경험들과 여행당시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 경험이 많은 이용자는 다음 여행지를 정하기도 합니다.

-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이 그림을 설명할 때는 1박이나 기차, 비행기 등을 타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하루나들이와 같은 시설 밖의 경험을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어요



여행가고 싶어요



외출하고 싶어요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외출하고 싶어요

- 내가 지금은 거주시설에서 살고 있지만 예전 거주시설에서 함께 어린 시절을 지낸 친구나 또는 외부강사로 함께 프로그램 했던 사람이나 전 생활 재활 교사 등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것과 '시설 아닌 곳으로 외출해서 만나고 싶다'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 외출이 자유로운 시설도 있으므로 이 그림 의미는 지역마다 달리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 놀이공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가볼 수 있고, 대학교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식 선택하고 싶어요

• 간식이 없는 곳도 있고, 하루 한번 또는 두 번, 거주시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용자에게 의견을 물어서 간식을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저녁식사 이후 취침 전에 우유 또는 빵, 과자, 과일 이런 순서로 제공받는 곳이 많습니다.

• 성인병을 걱정하여 간식을 많이 주지 않는 거주시설도 있습니다. 간식을 선택하고 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창 자라는 청소년 거주시설은 좀 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 무엇이든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선택 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옹호자는 이용자에게 간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래방 가고 싶어요

• 노래방 기계가 많은 거주시설에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외출해서 노래방 체험을 해본 이용자는 시설내 노래방과 외부에서 즐겼던 노래방이 다름을 압니다. 시설의 노래방기계는 내가 부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전에 노래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시설 밖 노래방은 '내 맘대로' 눌러서 아는 곡이 나오면 따라 부르고 춤추고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노래방을 선택한다고 표현합니다. 이용자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면 노래방에 자주 가고 싶은데 돈이 들어가지서 자주 이용할 수 없음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 이 그림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노래방 기계를 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내가 눌러서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군가 눌러줘서 부르는 것보다 즐거울 것입니다. 노래방 기계를 다루는 법도 시설 안에서 잘 이뤄지고 있나요? 요즘 신곡을 잘 아는 청소년들이 있는 청소년시설임에도 신곡 업데이트가 안 된 기계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용시간과 기계작동시간을 정해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종사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물음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요



간식 선택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영화관람 하고 싶어요



노래방 가고 싶어요



경기관람 하고 싶어요

영화관람 하고 싶어요

•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장면입니다. 거주시설이 대도시 또는 시내에 근접해있으면 극장과 같은 문화시설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소도시나 시내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 극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화관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주제는 영화이지만 외부에서 연극을 볼 수도 있고, 뮤지컬을 보기도 합니다. 음악회도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접근이 거주시설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그림의 목적입니다.

• 단체로 가기보다 경기관람처럼 소규모로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극장이 아닌 시청 등에서 진행되는 영화상영도 가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관람 하고 싶어요

• 실내에서 tv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장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보고 싶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거주시설에서는 내가 원하는 경기를 보는 것도, 경기장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거주시설의 위치가 시내가 아니라 시외지역이라면 경기장 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팀의 경기가 아닌 거주시설에 후원으로 들어온 무료표로 단체관람을 하기도 합니다.

• 이 그림에서는 거주시설에 살아도, 단체생활을 하더라도 문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 만약 이 그림처럼 경기장을 이용하는 거주시설이 있다면 해당경기를 본 뒤에 거주시설 내 이용자 사이에서 직접 그 운동을 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무료관람권으로 단체로 이용하기보다 원하는 경기를 선택하고 그 그룹끼리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해봤으면 합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 이용자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것이 '공부하고 싶어요'입니다. 그중 한글을 배우고 싶은 것이 1순위 이었습니다.

• 본인 이름을 쓸 수 있는 분도, 예전엔 글을 알았지만 자꾸 쓰지 않아 잊어버렸다는 분, 자기 이름을 제대로 못 쓰는 분, 그리고 장애가 심해서 공부를 포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이용자가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시설종사자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서 외부에 강사를 예 • 구문 학습, 빨간펜 학습지 선생님께서 직접 시설 방문하여 1:1 교육을 하는 곳도 있으며, 이용자는 외부교사와의 학습에 더 의욕적이고 배움의 활력을 가지며 한글을 깨우치며 좀 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 나만이 혼자 할 수 있는 약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용자도 많습니다. 배움에 대한 의욕도 많은 것을 접해 보지 않고는 상상을 할 수 없듯이 다양한 경험들을 지지해주는 옹호자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 대부분의 시설에는 층마다 최소한 컴퓨터가 한 대 이상은 있지만, 모든 이용자가 컴퓨터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방마다 한 대씩 있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용자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 컴퓨터로 한글 익히기도 할 수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이용자의 경우 컴퓨터로 음악 듣기 등을 안내한다면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일하고 싶어요 / 돈 벌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 거주시설에서의 운동은 시설 내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마당 산책이나 등산이 전부입니다. 복지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복지관이 멀 경우는 활동적인 운동은 어렵습니다. 시설 내 러닝머신의 경우 종사자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자의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림처럼 달리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 다양한 운동을 이용자 자신이 선택해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용자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예: 에어로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공용자전거가 아닌 본인 소유의 자전거 내지는 운동기구를 원하기도 합니다.

• 옹호자는 이용자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과 활용을 위해서 다양한 취미생활로 운동을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일하고 싶어요 / 돈 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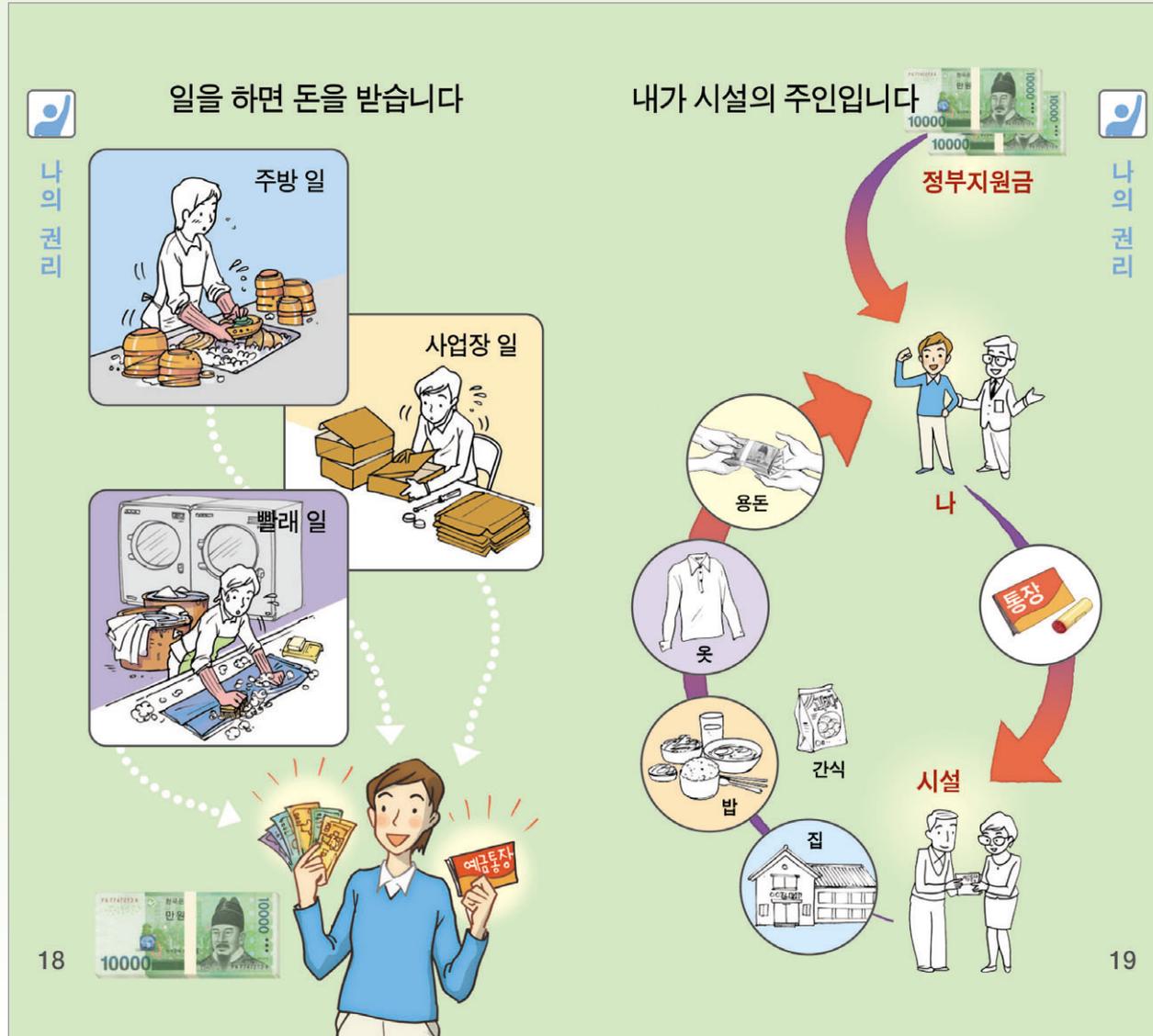
• 시설 이용자도 내가 갖고 싶은 것(특히 핸드폰)을 위해선 일해서 돈을 벌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욕구들은 많으나 직업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옹호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용자의 재능을 잘 살펴 작은 것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이용자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직업생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용자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지역일수록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옹호자는 이용자에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꾸준히 설명하고, 거주시설에서는 지역사회 일자리에 대한 촉을 놓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 이용자 중에는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그림은 사회적으로 임금 착취, 강제 노동 등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경각심을 갖고 이용자에게 노동을 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 특히 거주시설 내에서 빨래하거나, 작업장 일을 하거나, 주방에서 일을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식판정리를 도맡아서 한다던가, 다른 이용자의 빨래를 걷고 가는 경우 아르바이트처럼 일한 시간을 계산하여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거주시설도 있습니다.
- 옹호자는 이 그림을 통해 이용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내가 시설의 주인입니다.

- 그동안 거주시설은 보호관점으로 이용자를 바라봤습니다. 거주시설의 운영과 방식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삶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거주시설은 곧 이용자가 '주인' 이라는 의식을 갖고 거주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나를 위한 정부지원금과 후원금이 있고, 그 돈을 거주시설에서 관리하여 거주시설은 나에게 내가 지낼 거주지를 제공하고,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 거주시설에 지급되는 돈으로써 그 돈은 거주시설에 생활하는 나를 위한 돈이므로 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이와 별도로 거주시설 이용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은 여가, 지역사회 이용, 사람과의 만남, 문화, 교육 등에 사용되며 이 수당은 이용자 본인이 사용처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라는 점을 옹호자는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 과거 거주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용자는 그곳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시설 내 이용자가 대부분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설을 나갈 수 있다는 것, 다른 집에서 살 수 있는 것,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그림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의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 있고, 시설 이외의 장소를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꼭 거주시설에서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집을 구해서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들과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 제시된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옹호자는 이용자에게 그림과 함께 설명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권리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모여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약이에요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나의 권리

무슨 약이에요요?

- 시설 내에서 이용자는 다양한 약(신경안정제, 수면약)등의 처방을 받고 복용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거 시설 내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약을 복용하거나, 과다하게 먹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약 세봉지를 한꺼번에 먹어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 그림은 거주시설 이용자가 현재 자신이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용자 본인이 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며 옹호자는 이용자가 복약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옹호자는 그림처럼 실제 본인이 복용하는 약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단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경우 대부분 자신만의 안정된 공간을 찾아서 기분을 풀기도 하고 안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싸우거나 말다툼을 할 수 있고, 기분이 울적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자기만의 공간에서 안정 취하고 기분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 옹호자는 이용자에게 기분이 울적하고 안정이 필요한 순간에 혼자 있고 싶다고 의사표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옹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거주시설은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 독립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거주시설 내에서 친숙하고 익숙한 공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마세요

- 때리기, 꼬집기, 목조르기, 귀 잡아당기기가 거주시설내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같은 이용자의 행위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자신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대로 괴롭히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당하면 이용자가 '하지마세요' 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또한 이 그림을 설명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인에게 당하거나, 타인에게 행하거나, 타인이 다른 타인에게 행하는 장면을 목격할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옹호자는 이용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당사자 자기방어 교육이나 옹호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말해요의 감정그림과 연계시켜 맞는 사람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 시설종사자에 의해 이용자의 행동교정을 이유로 체벌이 일어날 수 있고 이용자 간에도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용자가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목 조르지 마세요

- 이용자 간의 목조르기는 자칫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그림은 타인에 의해 목조르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픈 부위인 목 부분에 집중될 수 있도록 색을 넣었습니다.



싫어요
하지마세요



꼬집지 마세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꼬집지 마세요

- 은밀한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꼬집힘입니다.
- 꼬집힘은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일어나고, 이유 없이 꼬집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그림은 거주시설 내에서 타인에 의해 꼬집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꼬집힘을 당하는 부위와 사람의 얼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채색을 최소화했습니다.

귀 잡아당기지 마세요

- 거주시설 내에서 타인(시설종사자/ 같은 거주인 포함)에 의해 꼬집힘 못지않게 귀를 잡아 당기는 행위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귀를 잡아당기면 당하는 사람의 체구와 상관없이 제압되기 때문에 신체적 공격을 하는 이용자를 제압하기 위해 종사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폭력입니다.

귀 잡아당기지 마세요



욕하지마세요/반말하지 마세요

• 거주시설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말을 낮추거나 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서로 높임말을 쓰도록 합니다.

• 이용자 사이에서도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거부의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왕따 시키지 마세요

• 이용자들 사이에서 관계의 문제로 한명의 이용자를 따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종사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이용자에게만 벌의 형태로 간식을 주지 않고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왕따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 상황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옹호자는 거주시설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 가족으로써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싫어요
하지마세요



왕따 시키지 마세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벌 세우지 마세요

• 이 그림의 포인트는 벌을 세우는 '손'입니다. 벽을 보고 서 있는 모습만으로는 이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손'의 모습을 보고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벽을 보고 서게 하는 것은 이용자가 수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거주시설 이용자에게 가해서는 안됩니다.

빈방에 가두지 마세요

• 이 그림의 포인트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 밖에 사람이 서있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제압합니다.

• 감금은 행동교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옹호자는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하지마세요, 싫어요' 등의 명확한 거부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내 몸을 만지면 싫어요

• 거주시설 내에서의 성추행은 종사자가 없는 시간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동성에 의해서도, 이성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야간이나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밤 시간대에는 근무하는 종사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자가 거부하고, 종사자나 다른 이용자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옹호자는 반복적으로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내 몸 만지지 마세요

• 스킨십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동의 없이 이뤄지는 스킨십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 이 그림을 통해 허락 없이 누군가의 몸을 만지면 만짐을 당하는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이 어떨지 맨 앞장의 감정그림을 통해 감정을 이해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 허락없이 타인의 몸을 만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옹호자는 반복적으로 그림을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싫어요
하지마세요



싫어요
하지마세요



내 물건 만지지 마세요

• 자신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는 것이 싫은 이용자의 사물함에 종사자가 허락없이 물건을 손을 대는 장면입니다.

• 이용자의 사물함은 이용자의 개인적 공간입니다. 공동생활 속에서 자신의 사물 등을 넣을 수 있는 개인적 공간에 주인의 동의 없이 손을 대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일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중에는 자기 사물함에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보관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용자와 함께 사물함을 정리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정리하는 등 이용자의 참여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내 물건 가져가지 마세요

• 단체생활로 인해 개인 물건이 없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물건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타인이 자신의 물건을 가져갈 때 '가져가지 마세요, 하지마세요' 와 같은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지마세요」라고 거부의 의사표현을 한 뒤의 대처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도망을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거나 인권센터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의 상황들은 모두 옹호자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면 빨리 도망가요.

•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경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를 당하는 이용자에게 나를 지키기위해 도망갈 수 있다는 것,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옹호자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 거주시설 내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해당 상황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몸이 아프거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함께 생활하는 종사자이므로 무슨 일이 생기면 종사자에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앞의 그림들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용자가 할 경우, 옹호자는 '이야기 한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괴롭히면 빨리 도망가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전화번호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331
국가인권위원회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나를 도와주는 전화번호

• 도움이 필요할 때 15775364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330 국가인권위원회,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등의 번호를 보고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옹호자는 이용자가 이 전화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번호를 눌러보는 연습, 통화를 직접 해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들이 쌓이면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편집후기

이 수첩에 거주시설에서 이용자가 보장받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었기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번 제작은 이 수첩이 전국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배포된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주시설 중에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운영하고,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권리옹호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설 밖은 나갈 수 없고, 시설이 오갈 데 없는 자신을 받아주는 고마운 곳이기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시설이 정해준 삶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주시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 곳들이 아직 있기에 이 수첩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용자 교육, 종사자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이 수첩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생겨난다면 이 수첩은 제 몫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수첩을 받은 이용자가 그림들을 자주 들여다보고, 그림들을 의사소통의 도구로써 활용한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활용방법은 없습니다. 이 수첩을 토대로 거주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수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첩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종사자가 이용인의 권리옹호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생각을 도와주는 책
이해를 도와주는 책 - 옹호자를 위한 설명서-

제작위원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미현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간사

이상윤 젊은기획 대표, 삽화가

이찬미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센터장

조문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센터장

최희정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팀장

발행일 2014년 11월